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지방위 추진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순창군 심초마을 18억 투입

2018년까지 생활 인프라 확충·휴면케어 프로그램 진행

순창군이 생활여건이 열악했던 인계면 심초마을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군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인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순창군 인계면 심초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군은 국비 13억 2천만원을 확보하는 평거를 이뤘다.

군은 앞으로 2018년까지 도비, 군비 등을 포함해 총 18억여원 투자해 심초마을 상수도 공사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과 어가활동 등 각종 휴면케어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은 민·관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통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전국에서 44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

심초마을은 현재 42세대 95명이 거주하는 농촌마을로 슬레이트 주택비율이 56%, 30년이상 주택비율 인프라 87%, 재래식 화장실 비율이 26%에 이른다.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등 생활환경이 열악해 주민 생활여건 개선사업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군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해 2018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미루려는 계획이다.

우선 슬레이트 지붕개량 24가구, 집 수리 34가구, 빙집철거 5가구를 추진한다. 또 재해위험지구 석축쌓기, 옹벽설치, 가드레일 설치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창=구인규 기자

비, 태양광 포총기 설치, 휴식공간 조성, 새마을 공동하고 모델링 등을 통해 주민 공동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바꾼다.

이외에도 새뜰마을 주민교육, 마을 역사 문화학자 발간, 실버댄스, 스포츠교실, 장수요가교실 등 휴면케어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심초마을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편안한 생활을 누리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14년 전국 최초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금과 방죽마을이 선정되고, '15년 새뜰마을 사업 풍산 두지 선정에 이어 올해 인계 심초마을이 선정돼 주민 생활여건 개선 사업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순창=구인규 기자

임실군 쌍암마을 10억 투자

임실군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6년 새뜰마을사업 공모사업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운암면 쌍암마을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하여 마을 소하천 배수로 정비 등

생활 위생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빙집 및 슬레이트 철거 등 주택정비와 담장 정비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열악했던 쌍암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 사업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평가 등을 통해 선정되는데 무엇보다 사업주

진을 위한 주민 스스로의 강한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여 낙후마을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암마을 황주철 이장은 "노후주택과 미술하천을 정비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군, 예산확보 빠른 행보

박우정 군수, 중앙부처 등 방문 50억 확보 나서

박우정 고창군수가 지역 혁신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바삐 움직이고 있다.

군은 내년도 혁신사업 예산확보와 재정 협력·지원 요청을 위해 박 군수가 국민인전처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와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고 4일 전했다.

고창군은 지난해 교촌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사업에 재해분야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해 사면보호 및 안전시설물 보수와 보강을 추진 중에 있다.

군은 이와 함께 고창배수지 아래 주거지와 인접한 급경사지를 추가 정

비하는 한편 성산과 연결하는 산책로 380m개설과 안전쉼터 조성으로 안전 취약지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50억원 확보에 나섰다.

박 군수는 아울러 새만금위원회와 고창출신의 재계 인사를 만나 고창일반산업단지와 북부자식품농공단지 기업유치 등 고용증대와 신규인구 유입,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세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박우정 군수는 "지역 개발이 탄력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로컬트리뷴



임실군, 서울 직거래행사 2억 매출

임실군은 지난 1월28일부터 4일까지 서울 은평구를 시작으로 강서구, 양천구, 마포구 등 4개소에서 추진한 직거래행사에서 2억원 상당의 판매 성과를 거뒀다.

이번 직거래행사는 임실치즈농협, 임실축협, 가공업체, 생산농가 대표 등 14개 업체가 참여하여 치즈, 유제품, 한우고기, 전통장류, 한과, 건강보조식품 등 다양한 임실군 농특산물을 시중보다 최대 15%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대도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설 차례상에 많이 쓰이는 국거리 불고기 등을 구매하기 위해 임실축협 코너를 찾아오는 한우고기 소비자는 끊임 없이 이어졌고, 각업체에서 준비한 치즈, 한과 등의 설명절 선물세트는 일찌감치 완판되는 등 이번 설맞이 직거래행사는 설을 준비하는 도시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임실군 농특산물을 홍보에 기여하는 역할을 복록히 해냈다.

한편, 심민 군수는 비롯한 문홍식 군의회의장, 최완 농협군지부장 등 지역 관계자들은 지난 2일 자매결연지인 강서구를 방문해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실군 농특산물 홍보에 참여한 직거래행사 참여업체를 격려하고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고마움을 전달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영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 최종보고회

소개 및 고창생물권보전지역의 5대 핵심지역 중심의 사계절 자연

경관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되며, 고창군을 알리는 홍보영상물 제작됐다.

4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박우정 고창군수와 각 실과소장과 영상을 제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홍보영상물 제작'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창생물권보전지역 홍보영상물을 시청과 자연이 어우러진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5대 핵심지역의 영상을 접할 수 있는 영상이 다수 제작 보고 됐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관내 각종 회의나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나 회의 또는 국제회의 시 상

영화로 활용할 수 있는 영상으로

각종 기관단체나 군민들이 쉽게

영상물을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

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영

상제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터 4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인증조사

에서 ▲기본가치체계(안전보장활동, 지속적 질 향상) ▲환자인료체계(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수술 및 미취진정관리, 의약품 관리, 환자 권리존중 및 보호) ▲지원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총 91개 기준 537개 조사항목에 대해 평가를 받아 4년간 유

효한 인증서를 받게 됐다.

그 결과 남원의료원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명실상부 3도 7개시·군을 대표하는 지역거점공공 병원임을 증명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경찰, 탈북민가정과 情 나눠

남원경찰서는 보안협력위원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하는 탈북민 가정을 방문하여 외로움을 달래고 정을 나누며 위로·격려하는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하는 후원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사랑나눔은 경찰과 보안협력위원회가 결연을 맺은 탈북민 31세대를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는 탈북민의 외로움을 달래고 위로하면서 사회정착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였고, 정성을 담아 준비한 선물도 전달하였다.

탈북민 A씨(60세, 남)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설 명절이라 고향생각에 외로움이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기족과 같은 마음으로 정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남한 사회적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농업시설·농촌주택개량 사업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순창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정부의 농촌 육성지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30% 감면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견립·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실시하는 경계복원, 분할측량 등 정부 보조사업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읍면장이 발급하는 농업기반시설 정보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와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문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군 민원과 지적측량 접수청구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순창군에서는 이 사업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은 사례는 99건에 천여만원으로 농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순창=구인규 기자

고창군, 설 민원 종합상황실 운영

고창군이 설 연휴를 앞두고 주민불편 민원해결과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주민 및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상황근무반, 쓰레기처리반, 상하수도, 물가·교통·재난·재해예방·도로관리, 의료대책반, 구제역상황반 등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가 추진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이엔제이그래픽

간판, 현수막, 표찰, 현황판, 실사출력전문,
 안전용품, 가구, 커텐, 차량랩핑

**Tel. 063-633-1201
 Fax. 063-633-1203
 e-mail . 6331201@hanmail.net**